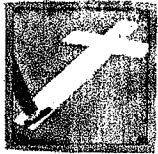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 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건
창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야기 저애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모든사람들의 삶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팔,다리,머리,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시오 감히 청할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칠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 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그면 그랬지▶ 구봉광산 양창선씨 매몰
1960년대 초반, 전국이 구봉광산의 광부 양창선 씨의 갱내 매몰로 그의 구출에 온 촉각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매몰 후 물로만 연명하다 15일만에 구출돼서 세계기록이라고도 하였죠. 레슬링 선수였던 양창선 씨와 늘 혼동되었던 이름, 사건도 지나고 나니 추억이 뒀을 알게 해주는 그 시절의 사진 한 장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5권 43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0월 26일
☎520-9464,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김성국



인상이 호감을 주는지
아님 고집스러움이 두 볼 사이에 붙어 있는지
목소리가 부드러운지
아님 유치한 자랑이 몸에 벤 꼴끼러운 음성인지
손 가짐이 단정한지
아님 허둥대는 마음에 손이 부자연스러운지
머리는 잘 다듬어 져 있는지
아님 생각의 흐트러짐으로 손대지 않은 머릿결인지
눈빛이 맑은지
아님 남 흉집 찾기에 흐려진 눈동자인지.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바라 보고 싶다
소리내며 흐르는 시냇물과 분주한 명예 사이에서
어느 쪽을 찾아가는지
밤 하늘의 별과 스타 의식의 갈림길에서
어디를 올려다 보는지
약자 앞에서 거들대는 강한 자의 횡포에
거룩한 분노의 핏발이 눈에 서는지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 길을
남이 밟고 가도록 옆으로 비켜 주는지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늘 나라 생명책에 나란히 기록되고 싶은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을

◀엄마가 딸에게▶
혼수감에 예민한 자를 멀리하라
보잘것없는 찬이라도
감사함으로 함께 먹을 남자와
결혼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보고
교회를 정하지 마라
성경을 바로 전하는
교회를 찾아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8장	다 같이
*성시교독 Response Reading	23 (시편 98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06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3:4-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은(6) "이기심을 이기는 사랑"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86 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 1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6	정희자	경덕현		김종건, 김진근
2	지찬영	고성일		김현수, 김홍구
9	최재학	권용일	권정호, 강현정	박병민, 박 실
16	김교섭	김경숙	정종일, 이선애	박일영, 박재양
23	김순자	김경일		박태원, 서동완
30	김종건	김동숙		양경배, 원성호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국에선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방송마다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곳 한인방송에서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들려 올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요?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 교우소식

<이 사> 이주익, 박경주 집사 ☎ 476-0908 ☒ 33A Penguin Dr. Murrays Bay
<한국방문> 이광희 장로. 부모님 뵈러 가시면서 오실 땐 장모님 모시고 오십니다
김성국 목사. 부친 방문키 위해 오늘 방 출국

<목사안수 후 귀국> 전병주 목사

2. "봄맞이 3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표어: "나를 통해 자녀의 길에 복을 주소서"

"나를 통해 부모님이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했던 3주간의 기도회! 자녀를 위해 드렸던 기도의 향연은 하늘의 보좌를 가
리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매일 드렸던 새벽기도회기에 금요일 하루 갖는 새벽
기도회 출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3. 무명으로 봉헌하신 가정들이 계십니다.

*<소 파> 장년부실에 비치 할 소파

<Table> Hall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Table

4. 수요일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재작년 1월에 시작했던 출애굽기 강해가 어느덧 2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착한 시인들▶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 노천영 -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 지붕에 박영을 울리고
삼밭엔 오이랑 호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엔 하늘을 옥심껏 들여놓고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영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오.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늦양푼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랑과 밤이 늦도록
여우나는 산골 얘기를 하면
삼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오

어릴 적 나의 시골은 벗어나고픈
촌터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첨단 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
는데도 가끔 손에 전화도 없이 내
불일을 보노라면 무엇인지 자유인
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제야 쑥 모깃불 피우고 아카시
아 꽃 따 먹던 시절이 있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나마 아
련한 추억을 갖고 있는 나는 무척
운이 좋은 편입니다. 서울 한 복판
에서만 살았던 아내는 무슨 추억
을 담고 사는지 궁금합니다.